

전남도, 중국 연길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 개장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식품으로 현지 소비자 집중 공략

전남도는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소재한 만달광장 쇼핑몰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 중국 5호점을 개장했다.

도에 따르면 상설 판매장 운영은 현지 무역전문법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가 맡았다. 현지 소비자와 한인 동포를 집중 공략해 연간 50만 달러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판매 품목은 전남 특산품인 친환경 유자 가공식품, 조미김, 매실청 등을 비롯해 오곡누룽지, 소주, 작두콩차, 쌀과자 등 도내 15개 기업 29개 제품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인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 대표와 김영심 전남도 중국사무소 소장, 웬센 후이 길림성 외판아시아처장, 천추량주 길림성 외판부주임,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전용판매장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는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아용 식품, 스낵류, 음료, 차, 전통주류, 수산가공품을 주로 수입해 상해 자유무역성 등 직관장 2개소와 현지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연 매출 487만 달러의 중국 현지 유통 전문기업이다.

만달광장은 부동산, 호텔, 금융이 주 사업인 중국 10대 재벌그룹 만달그룹이 전국 254개 지역에 개설한 대규모 종합쇼핑몰 브랜드다.

연길시 만달광장은 지난 2016년 55만㎡ 규모로 개장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에 이르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 15억 위안(한화 2천890억 원)을 올린 연변 소수민족 자치주 최대 규모 종합쇼핑몰이다

개장식에 참석한 길림성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이 개설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길림성 주민들은 전남도의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에 관심이 높아, 이번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우호 교류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앞서 중국에 개설한 4개 상설 판매장을 통해 지난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200만 달러를 넘겨, 입점 기업이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주요 도시에 상설 판매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운 기자



전남도는 최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소재한 만달광장 쇼핑몰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 판매장' 중국 5호점을 개장했다. 도에 따르면 상설 판매장 운영은 현지 무역전문법인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가 맡았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인기몰이'

산악·호우·지진안전 등 어린이·성인 대상 체험

'안전체험 교육의 장'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광주시가 일상 속 안전사고는 물론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체험교육시설로, 지난해 10월 북구 오치동에 문을 열었다.

체험구역은 ▲지하 1층 어린이 안전체험 ▲1층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2층 화재안전, 생활안전 ▲3층 응급안전, 학생안전으로 유아,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체험관은 도심 접근성이 좋

아 광주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방문이 이어지고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체험객이 줄을 잇고 있다.

체험관 이용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만 가능하고,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프로그램 운영횟수와 체험인원을 50%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방문객수는 4만7천여 명에 달했다.

체험관은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물놀이 방법과 구명환 사용법, 폭우 시 안전한 대피 체험 등을 운영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인형극도 선보였다.

또 매주 목요일을 '배려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이용자 4,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99%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98%를 차지했다.

체험관은 하반기에는 개관 1주년 행사, 송년 문화공연 등 이벤트도 진행하고, 교관요원 체험교육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 추진, 홈페이지 예약 관리시스템 보완 및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대상 경력 채용

향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 최초로 '호우안전체험'을 특화하고 광주의 대표 명소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안전체험'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약자를 위한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매주 월요일과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에는 휴관하며, 체험관 이용은 무료다.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062-606-4804~6)로 하면 된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R&D 경력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21일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talent.hyundai.com)'를 통해 연구개발본부 경력 채용 모집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부문은 ▲전동화/배터리 ▲차량아키텍처 ▲차량통합제어 HW/SW 개발 등 총 87개 분야이며,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 수준이다.

이번 경력 채용은 본격적인 친환경차 전환 시대에 발맞춰 전동화 통합제어 개발 분야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 사업영역인 고성능차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수소 연료전지 등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우수인력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AI를 활용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면 응답 과정에서 지원자의 표정, 행동, 음성 등 비언어적 요소를 AI를 통해 분석한다. 지원자를 보다 더 면밀하고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기존 서류 전형과 직무 면접 사이 진행하던 전화 인터뷰 방식을 AI 활용 화상 인터뷰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편, 현대차는 작년 9월부터 소프트웨어 경력 개발자를 매월 모집·채용하고 있다. 대졸 신입 채용의 경우, 지원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난 7월부터 매 홀수월의 1일마다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talent.hyundai.com)를 통해 일괄 모집하고 있으며 9월 중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택(주) 업무대행사 데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면상 배당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자(G)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사계, 외관, 층고, 외관색 등 미시적인 부분의 변경, 시공을 위하여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